

운곡서원(雲谷書院) 춘향례(春享禮) 봉행

시조 태사공을 주벽으로 죽림공(竹林公) 권산해(權山海)와 귀봉공(龜峯公) 권덕린(權德麟)을 배향하고 있는 운곡서원의 춘향례가 3월 29일 11시 운곡서원 경덕사(景德祠)에서 봉행되었다. 향례는 아침 8시 진설(陳設), 9시 시도(時到), 9시 30분 배반(配飯), 10시 파묵(爬錄)과 사축(寫祝: 축을 필하는 것), 11시 향례 순으로 진행되었다.

권오신 운곡서원 운영위원장을 비롯하여 권혁무 전 운곡서원 운영위원장, 권영원 경북신문 사장, 권용주 전래위원회 부위원장(성균관유도회 안동지부 회장)과 박대기 여사, 권혁웅 경주총친회장(전 경주향교 전교, 대중회 신임 전래위원), 권경택 경주청년회 회장, 권웅진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고문, 권원수 대중회 이사 등 70여 명이 참여하였다. 당초에는 안동총친회에서 대형버스 1대를 대절하여 참제할 예정이었으나 느닷없는 산불로 취소됐다.

향례 집사(執事)는 초헌관 최성도(崔晟燾), 아헌관 권태환(權泰煥), 증헌관 이영환(李泳煥), 대축 이두원(李斗源), 찬자 김해수(金海濤) 등으로 분정했다.

최성도 초헌관의 주재하에 소임이나 직책을 나누어 맡은 사람들의 이름을 벌여 적는 파묵이 진행되었다. 파묵을 마치자 경덕사 문 앞에서 대축을 필사하는 사축을 했다. 이어서 흥기에 따라 향례를 봉행했다.

향례를 마치고 최성도 초헌관은 “운곡서원은 태사 권 선생의 국가와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정려하였고, 귀봉공은 문과에 급제하여 고을 수령을 하셨는데 천추만대에 길이길이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향례에 성손들이 참석하여 엄수하여 소임을 착오없이 진행하였으니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권태환 아헌관은 “여러 족친과 귀빈들께서 참석하여 함께 봉행하니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빈다”고 말했다. 이영환 증헌관은 “5.6년 전에 헌관을 하고 오늘 다시 헌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이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1491~1553) 선생의 16대손으로 헌작을 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귀봉 선생은 회재 선생의 유일한 제자이다. 귀봉공은 회재 선생의 사촌 여동생의 남편이기도 하다. 옥산서원이 융성했는데 귀봉공은 준공 전에 돌아가셨다. 그러나 귀봉 선생의 옥산서원 설립에 대한 공은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권오신 운영위원장은 “향례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귀감 삼아 후손들이 미래 1000년을 바라보고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귀봉공은 명종 때 대학자로 회재 선생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웠다. 회재 선생은 숙부의 딸을 보내 사위로 삼을 만큼 제자 귀봉공을 아꼈다. 귀봉공은 25세(1553)에 별시 문과에 급제했다. 이영환 증헌관이 말하는 옥산서원 설립에 대한 귀봉공의 공(功)은 스승 회재 선생이 명종 2년(1547) 양재역 벽서사건으로 유배되어 6년 뒤 명종 8년(1553) 유배지에서 숨



파묵

을 거두자 정치적 위험을 무릎쓰고 경북 월성 강동에 옥산서원을 세워 회재 선생을 제향하고자 했다. 이로 인해 귀봉공은 외적으로 밀려나고 벼슬길이 막혔는데 1572년 선조5년 서원을 창건하고 초당(草堂) 허엽(許曄, 1517~1580)에게 기문을 청하였다. 허엽이 지은 옥산서원기에는 “함천군수 권덕린은 회재 이 선생의 학도이다. 용경 6년(1572) 늦가을에 그가 나에게 편지를 보내어 ‘회재 선생을 위하여 서원을 지었으니 이 서원의 기문과 재사의 이름을 지어 주시기 바란다’고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회재 선생은 경주 양동마을 태생으로 문묘와 종묘에 동시 배향된 6현 중 한 명이다. 6현은 회재 이언적,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 율곡(栗谷) 이이(李珥, 1536~1584), 신태재(愼獨齋) 김집(金集, 1574~1656),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 1607~1689), 남계(南溪) 박세채(朴世采, 1631~1695)이다. 경주 양동마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운곡서원은 정조 8년(1784) 경주의 유림과 전국의 후손들이 후원사를 세우고 고려의 개국공신인 시조 태사공을 주향으로 하고 단종의 이모부인 죽림공 권산해와 귀봉공 권덕린을 배향했다. 그러나 1868년 고종5년 대원군에 의해 훼손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1903년 광무7년 대한제국 때 현재의 자리인



축을 필사하는 사축



시조 태사공 신도비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에 단을 쌓고 제향을 봉행하다 1976년 중창하고 향의(鄉議)에 따라 운곡서원으로 개편하였다. 운곡서원에는 경덕사와 시조 태사공의 신도비와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 제345호인 유연정(悠然亭) 등이 자리하고 있다.

권오신 운영위원장과 권혁무 전 운영위원장, 권혁근 족친은 향례 전날 밤 운곡서원에서 비문 등 물려줄 사람이 없는 현실을 비롯하여 후속세대 양성 문제에 대해 걱정하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다. 권태환 아헌관은 하루 전날 도착하여 운곡서원에 붓과 베풀 한 세트와 하얀 양말을 선물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경주 운곡서원 춘향사 참례 후기

권기색 (좌윤공파, 36세)



만이 아니라, 일체(一體)의 운곡서원(雲谷書院)의 전경(全景)이 한눈에 속 빠져 들어오니, 가히 무릉도원(武陵桃源)이며, 선조(先祖)님들마다 자기 대(代)에 이르러, 개인(個人)의 욕심(欲心)을 버리고, 이 터를 자깁에 존경(尊敬)하고 또 존경(尊敬)하며, 새벽 첫 열차를 타고 단숨에 달려 온 내 송조(崇祖)의 그리움이며, 앞드려 크게 절하며 또 절하며 다짐합니다. 선조(先祖)님들의 은덕(恩德)에 감히 내 육신(肉身)과 정신(精神)이 살아 있음이다. 라고 명심(銘心)함ियो.

춘(春) 향사(享祀)는 집사자(執事者) 상음례(相揖禮)를 시작으로 분정례(分定禮)와 사축(寫祝)으로 그 예(禮)와 법도(法度)에 따라 행사(行祀)가 거행(舉行)되니. 운곡(雲谷)의 푸른 빛과 함께 엄숙(嚴肅)하다. 외삼문(外三門)으로 들어오는 바람결도 부드럽기 짝이 없고, 압각수 은행나무 한참 물오른 가지마다 떨림도 바람 탓인가? 조상(祖上)들의 혼백(魂魄)이런가? 정의당(正懿堂) 대청마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축(寫祝)의 분위기(雰圍氣)는 가히 명문(名門)다음에서 오는 예(禮)에 대한 절절함의 극치(極致)임이 분명하다 싶다. 글자 한 자(字) 한 자(字)마다, 그 글의 흐름도 혈통(血統)에 대한 사모(思慕)이며, 이를 지켜보는 이들의 눈은 우리 조상님들에 대한 지고지순(至高至順)의 경지(境地)에 닿았다 해도 과언(過言)이 아니지 아니한가 싶다.

운곡서원(雲谷書院)의 경덕사(景德祠) 마당에 참례(參禮)의 반열(班列)에 서 있음에, 내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낸 그곳, 어찌 잊을 수가 있겠는가! 가슴이 미어지기도록 그 그리움이 복받쳐 오름에 진정 삶(眞實)가 이젠가 싶기도 하고, 불효(不孝) 막심(莫甚)했던 소생(小生)에 대한 뉘우침인가? 겹잡을 수 없는 그 그리움에 내 마음의 꽃이 되어가는구나!

운곡서원(雲谷書院)은 여느 전당(殿堂)처럼 처음부터 어느 분(分)을 위(爲)한 서원(書院)이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후손(後孫)들의 시조(始祖) 추모소(追慕所)로 시작하여 오다, 1784년(정조8년)에 ‘추원사(追遠祠)’란 제호(題號)로 창립(創立)하고, 1785년 10월에 주벽(主壁)과 배향위(配享位)를 봉안(奉安)함으로 해서, 드디어 이곳의 참 주인(主人)임을 만방(萬邦)에 고(告)하였으니, 시조(始祖) 태사(太師) 할아버지께서 려조(麗朝) 개국(開國)엔 큰 도움이 되었으니, 멸망(滅亡)한 고토(故土)를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애달팠을까? 그 위훈(偉勳)과 심정(心情)을 미루어 헤아린 후손(後孫)들과 유림(儒林)들이 이곳에 서원(書院)을 지어 추모(追慕)하는 것이 신리(神理)와 인정(人情)에 부합(符合)한다고 하는 그 깊은 뜻을 모은 곳이 운곡(雲谷) 서원(書院)을 세운 본의(本意)임을 감(感)히 밝혔듯이, 나의 길고 큰 그리움의 정제성(正體性)이 도도(滂滂)하게 흐르는 이곳 - 운곡서원(雲谷書院)에 오면, 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曾祖), 고조(高祖) 할아버지, 그 위로의 조상(祖上) 대대로 태사(太師) 할아버지를 향(向)한 함께하는 유일한 시공간(時空間)임을 자각(自覺)하며, 또 내년(來年)을 기약(期約)하며, 그 멀고도 긴 ~ 큰 ~ 그리움을 이제는 잠시 접어두려고 합니다.

중 회장, 권병돈 전 정강공중종 회장, 권순호 매현공 중종 고문, 권용호 매현공 중종 회장, 권경일 추밀공 파종회 사무처장, 권공범 전 참판공중종 회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되었다.

매현공 향사에는 초헌관 권태관, 아헌관 권병돈, 증헌관 권영달, 집례 권영렬, 대축 권혁승 등으로 분방하였다. 제례가 끝나자 참제자들은 사진 촬영으로 2025년 향사 참제를 기념했다.

이어서 매현공 묘소 바로 아래에 위치한 매현공의 큰아들 판윤공(判尹公, 權楷, 17세) 향사를 봉행했다.

초헌관 권용배, 아헌관 권병규 평후공 중종 회장, 증헌관 권용원 등으로 분방하였다.

권병규 평후공 중종 회장은 인사말에서 “매현공 향사에는 이번이 처음 참석했다. 많은 후손들이 참제해서 연속하고 질서있게 향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니 흐뭇하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향사가 끝난 뒤 매현공 중종에서는 정기총회를 실시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보물 제1917호 예천 야옹정 중수 기념식 개최



예천 야옹정(보물 제1917호)이 해체복원하여 알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17호 “예천(醴泉) 야옹정(野翁亭) 중수(重修) 기념식”이 4월 16일 오전 11시 경북 예천군 맞질길 55(용문분)에서 안동권씨, 기관장, 유림대표, 문중대표,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안동권씨북야공파 맞질 문중과 한국국학진흥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날 기념식에 우진웅 책임연구원 사회로 내빈을 소개하였는데 권영창 안동권씨대종회 회장을 비롯하여 권평 안동권씨북야공파 맞질

후손 대표, 김학동 예천군수, 강영구 예천군의회 의장, 홍성구 한국국학진흥원 부원장, 안병윤 국립경국대 부총장, 권석찬 안동문화원장, 권창용 전 예천문화원장, 이태현 예천군노인회장, 정흥진 예천군문화원 부원장 등이다.

권평 예천 맞질 후손 대표는 인사말에서 “야옹정은 조선 중기 건축양식을 간직한 귀중한 문화유산이며 오랜 세월 풍상을 견뎌온 야옹정이 원형을 최대한 보존한 채 중수를 마쳤기에 기념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예천 맞질 문중 문인들의 시 문집인 화산세고(花山世稿)와 정암(正菴) 권경하(權經夏) 선생의 문집 정암유고(正菴遺稿)의 국역(國譯) 성과도 함께 나누고자 한다 “고 했다. 인사말이 끝나자 권평 맞질 대표는 야옹정 해체복원사업에 힘을 쏟은 (주)고경 박기용 대표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어 김학동 예천군수, 도기욱 경북도의회 의원, 강영구 예천군의회 의장, 홍성구 한국국학진흥원 부원장이 차례로 축사를 했으며 권평 맞질 후손 대표는 홍성구 부원장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이어 최은주 한국국학진흥원 담당연구원은 야옹정 건립과 연혁 및 중수에 관해 보고했다. 야옹정은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낡고 오래돼 두 차례 수리하는 등 여러 군데 고쳤다. 또 야옹정이 남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마루청이 파손되고 뿔마루가 부식이 되었다. 이에 2018년 8월 보수공사에 들어갔으나 고칠 때가 너무 많아 2020년 10월 설계변경을 하여 야옹정 전체를 해체 보수한 결과 약 2년만인 2021년 9월 보수공사가 완성되었다. 그동안 코로나 확산, 책자를 발간하느라 준공식이 늦어졌다.

야옹정은 조선 중종(中宗) 때 학자로 의흥현감(義興縣監)을 역임한 야옹(野翁) 권의(權 .1475 - 1558)의 학덕을 받들기 위해 그의 아들 권심언(權審

言)이 명종(明宗) 21년(1566)에 세운 정자다.

이 자리에서 한국국학진흥원 번역위원인 황윤정(黃允貞) 선생이 “화산세고의 간행과 사료적 가치” 권민준(郭珉準) 선생이 “정암 권경하의 생애와 학문” 이지안(李智安) 선생이 “정암유고의 내용과 구성”에 관하여 발표를 하였다.

화산세고는 묘지(墓誌), 상향축문(常享祝文), 제문(祭文), 편지, 시 등이, 정암유고 1, 2 권에는 각종 제문, 상량문, 축문, 서(書), 소(疏) 등이 각각 수록되어 있다.

기념식 행사가 끝나자 주최 측은 참석자 전원에게 점심용 도시락을 제공하고 한자를 한글로 번역한 책 3권과 타월 1장씩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권영진 보도부장

추밀공파 매현공 춘향제 봉행



매현공(梅軒公) 권우(權遇, 1363~1419, 16세) 춘향제가 4월 7일(월) 11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102-9(장현리 산61-1)에 위치한 매현공 묘소에서 권용주 매현공 중종 고문, 권병돈 정강공중